



50 하이라이프 하이라이프

# STEP BY STEP

## STEP BY STEP

자그레브 도보여행 지도



관련 정보는 [www.infozagreb.hr](http://www.infozagreb.hr) 혹은 자그레브 관광 안내소/여행자 정보 센터에 방문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  
Trg bana Josipa Jelačića 11  
**관광 안내소**  
Franjo Tuđman 공향  
Ulica Rudolfa Fizira 21, Velika Gorica

**자그레브기차역 관광안내소**  
Trg kralja Tomislava 12

**로트르슈차크 관광안내소**  
Šetalište J. J. Strossmayera 9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Avenija Marina Držića 4

**발행인**  
자그레브 관광청

**발행대행**  
Martina Bienenfeld, Ph.D.

**디자인, 레이아웃 & 일러스트**  
Superstudio, Zagreb

**카피라이팅**  
Anja Mutić

**번역 및 교정**  
Croatia Consulting

**인쇄**  
---

**사진**  
자그레브 관광청 알카이브 (D. Rostuhar, M. Vrdoljak)

**출판인**  
출판물의 정보가 배포될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오류 및 출판 이후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기

**자그레브**  
크로아티아의 수도

**크로아티아**  
찾기 넘치는 나라

**어퍼타운**  
도보시간: 약 1시간

**로어타운**  
도보시간: 약 2시간

# 어퍼타운



**10 크로아티아 역사박물관 (HRVATSKI POVIJESNI MUZEJ)**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보이코비치-오르시츠-라우치 저택의 그랜드홀은 한때 상류층의 연회와 공연이 열리던 장소였다. 이 멋진 공간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역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주제를 가진 전시회가 기획되고 있다.

**9 세인트 마르크 광장 (TRG SVETOG MARKA)**  
빛나는 타일의 문장으로 장식된 세인트 마르크 성당의 지붕이 모든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반스키 드보리(총독궁), 크로아티아 정부청사 (블라다 리푸블리케 홀르바츠카),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크로아티아 국회의사당-사보르가 모두 이 곳에 모여있다. 광장 한쪽에 있는 건물에는 마티아 구베츠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 16세기 돌인 불기의 지도자였던 그는 이 광장에서 처형되었다.

**11 성 키릴로스와 성 메토디오스 거리 (ULICA SV. ĆIRILA I METODA)**  
9세기 글라골 문자를 처음 고안한 슬라브의 사도, 키릴로스와 슬라브 문학을 널리 전파한 메토디오스의 이름을 딴 이 거리에서는 많은 바로크양식의 저택을 볼 수가 있다. 이 두 사람에게 헌정된 그리스 가톨릭 성당과 20명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나이브아트 박물관도 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 시청사에서는 여전히 시의회가 열리고 있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가 있다. 혹시,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브로큰 릴레이션 박물관을 찾아가보자.

**14 스트로스마이어 산책로 (STROSSMAYEROVO ŠETALIŠTE)**  
자그레브 사람들이 스트로스라고 부르는 자그레브의 최초의 공공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자.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 가에 늘어선 벤치, 밤나무 그리고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시인 안톤 구스타브 마토슈 동상이 있는 벤치에 앉아 지친 다리를 쉬어가자. 로트르슈차크 타워에 오르면 자그레브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거의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정오에 대포를 발포한다. 이곳에서 1890년부터 어퍼타운과 로어타운을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이 파란색 케이블카를 타면 64초만에 로어타운으로 갈 수 있다.



**13 클로비체비 드보리 갤러리 (GALERIJA KLOVIČEVI DVORI I PLATO GRADEC)**  
17세기에 지어진 예수회 수도원이었던 클로비체비 드보리 갤러리에는 크로아티아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성당의 뒷편으로 가면 그라데치 언덕에서 내려다보이는 캄들과 반 엘라치치 광장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12 카타리나 광장 (KATARININ TRG)**  
우아하고 인상적인 바로크 양식의 세인트 카타리나 성당은 카타리나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17세기 예수회에 의해 세워진 이 성당은 한 개의 통로와 6 개의 예배실을 가지고 있다. 도시를 대부분 파괴한 1880년 자그레브 대지진 이후, 성당의 외벽은 헤르만 블레 의해 재건축되었다. 이 광장에는 1607년 예수회에 의해 세워진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중등학교가 있다.

**8 오파티츠키 거리 (OPATIČKA ULICA)**  
10번지의 세 개의 동을 가진 저택 건물에 들어선 크로아티아 역사협회에서부터 18번지,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지어진 귀족 드라슈코비치 가의 저택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거리를 산책해보자. 세인트 클레어 수녀원이었던 자그레브 시민박물관을 둘러보고 신부의 타워라고 불리는 북쪽 끝의 작은 탑도 둘러보자. 13세기 도시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 탑의 꼭대기에는 1903년 천문대가 만들어졌다.

**7 스톤게이트 (KAMENITA VRATA)**  
춥물을 밝히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자. 중세시대에 만들어져 성문 중 유일하게 남은 이 곳은 크로아티아 가톨릭 신자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중세시대에 처음 문헌에 언급된 이 성문은 1731년 대화재 이후 새로 지어졌다. 큰 불에도 성모마리아의 그림만이 가적처럼 남았는데, 촛불과 평안이 가득한 이 성문은 성모를 위한 작은 예배당이 되었다. 성문을 지나면 도라 크루피체바의 동상이 보이는데, 도라는 대작가 아우구스트 세노아의 크로아티아 최초 역사소설, "세금사의 금"의 주인공이다.

**5 블러디 브리지 (KRVAVI MOST)**  
이 자갈포장길은 한 때 메드베슈차크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던 자리다. 이름처럼 캄들과 그라데치, 두 지역은 수세기 동안 이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다. 1899년 복개공사가 이뤄지면서 다리로 철거되었지만 위협적인 이름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다.

**1 반 엘라치치 광장 (TRG BANA JELAČIĆA)**  
만두세바츠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어보자. 전설에 나오는 '만다'의 이름을 딴 오래된 분수는 아름다운 소녀 만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한 장군에게 이 생물을 떠주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어지는 짧은 하르미차 거리는 18세기, 시장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장소였다.

**3 돌라치 (DOLAC)**  
돌라치의 상징인 빨간색 파라솔이 인상적인 이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골라보자. 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끝에는 전통복장을 하고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있는 '쿠미차'의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은 수 세기 동안 옥수수병, 계란 같은 자신들의 상품을 자그레브 주변지역에서 '자그레브의 배라' 불리는 돌라치까지 들고 와 장사를 한 여성들, 쿠미차의 노고에 감사하는 동상이다. 꽃을 파는 가판대가 가득한 광장 한쪽의 기타를 든 우스꽝스러운 동상은 크로아티아의 유명 소설의 주인공 페트리차 게렘푸흐이다.

**4 트칼치체바 거리 (TKALČIČEVA ULICA)**  
과거에 이 거리는 물레방아가 모여있던 강으로 캄들과 그라데치의 거주지역을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오늘날 흔히 트칼치체바 불리는 이 곳은 파스텔톤의 타운하우스와 북적이는 카페 거리가 되었다. 이 거리의 한쪽에는 크로아티아의 유명 여류작가이자 20세기 초 여성의 인권을 주장한 최초의 여성 전문기자 마리아 유리치 차고르카의 동상이 서있다. 그녀는 대표적인 '그리치의 마녀'를 포획하여 자그레브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소설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녀의 동상 바로 뒤편에는 1955년의 예술프로젝트로 제작된 해시계가 있는데 현재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2 대성당 (KATEDRALA)**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종교건축물로 지난 8세기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재와 대지진으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던 이 성당은 20세기에 들어 지금의 네오딕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르네상스 성벽은 16세기 터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성당에는 금, 은, 목재, 양피지로 제작된 예배용품을 볼 수 있는 금고 (사전예약자만 입장)가 있다.

**★ 미로고이 공동묘지 (GROBLJE MIROGO)**  
→ 캄플에서 버스로 10분  
1876년에 설립된 크로아티아 최대규모의 공동묘지에는 이 곳을 가로지르는 미로 같은 산책로가 있다. 높은 나무의 그늘 아래 늘어선 조각과 파빌리온, 그리고 헤르만 불이 건축한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아케이드로 화려하게 장식된 중앙한 공원이 있다.

**가스가르들**  
지난 150년동안 자그레브를 밝혀주고 있는 가스가르들은 매일 일출 2시간 전, 지정된 램프라이터가 어퍼타운과 캄플 주변의 외벽과 주철기둥에 설치된 200개가 넘는 가로등에 직접 불을 밝힌다.

**그리치 타워**  
도시의 지하에는 2차 세계대전 때 공습대피소로 지어진 보행자 타워가 있다. 오늘날 자그레브의 주요 중심지를 이어주는 지름길 역할을 하는데 종종 전시회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로어타운

## 13 영국광장 (BRITANSKI TRG)

브리탄스키 트르그 혹은 브리타나초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골동품, 수집품을 살 수 있는 엔틱시장과 베품시장이 매우 열리다. 주 중에는 가판대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거나 현지인처럼 노천카페에 앉아 햇살을 즐길 수도 있다. 이 곳에서 11번 혹은 1번 트램을 타고 세 정거장을 지나면 '크로아티아인의 광장'으로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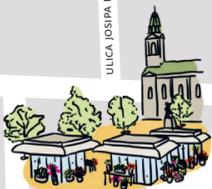


## 12 일리차 거리 (ILICA)

15세기부터 계속해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거리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긴 거리 중의 하나다.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가로, 일루선 박물관과 어퍼타운과 로어타운을 이어주는 케이블카 정거장이 있다. 만약 일출시간, 태양이 일리차를 똑바로 비추는 시간에 이 거리를 따라 서쪽으로 걷게 된다면 선글라스는 필수다.

## 10 페타라 프레라도비치 광장 (TRG PETRA PRERADOVIĆA)

유명한 크로아티아 시인의 이름을 딴 이 광장은 광장을 채우고 있는 꽃가게 때문에 '꽃의 광장'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4세기부터 다양한 행사가 있었던 이 곳은 오늘날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수피차의 중심지답게 자그레브의 야외 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1 옥타곤 (OKTOGON)

최초의 크로아티아 저축은행 건물 내부에 페타라 프레라도비치 광장과 일리차 거리를 이어주는 멋진 지름길이 있다. 팔각형 형태의 아트리움에 잠시 서서 동근 유리천장을 올려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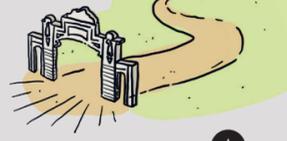


## 1 반 엘라치츠 광장 (TRG BANA JELAČIĆA)

자그레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 광장에서도 특히 반 엘라치츠 동상의 말 꼬리 아래와 시계탑 아래는 자그레브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약속장소이다.



**아우구스트 세노아**  
블라슈카 거리에는 이곳에서 태어난 19세기 소설가가 기둥에 기대어 있는 동상이 있다. 마리아 유예비치 갈레토비치가 만든 이 동상은 자그레브의 열성적인 팬이자 다작의 자그레브 연대기를 집필한 저명한 소설가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시이다.



## ★ 막시미르 공원 (PARK MAKSIMIR) → 트램으로 15분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공원인 막시미르는 1794년에 처음 개방되었다. 영국식 조경을 가진 이 공원의 규모는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비슷한 316헥타르에 이른다. 5개의 호수, 여러 개의 파빌리온과 자그레브 동물원이 있다. 반 엘라치츠 광장에서 11번 혹은 12번 트램을 타면 갈 수 있다.



## 15 메슈트로비치 파빌리온 (MEŠTROVIĆEV PAVILJON)

1938년 이반 메슈트로비치가 전시공간으로 설계한 독특한 원형건물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예술가협회의 본부건물로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이 건물에 얽힌 복잡한 역사를 알면 현지인들이 왜 여전히 드자미(모스크)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 14 크로아티아인의 광장 (TRG HRVATSKIH VELIK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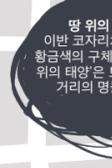
현지인에게는 자그레브 증권거래소 광장이라고 불리는 부르제 광장에서 쉬어가자. 광장 분수대의 배경에는 건축가 빅토르 코바치치가 설계한 고전적 스타일의 크로아티아 국립은행이 있다.



**자그레브 최초의 분수**  
'바섯'이라고 불리는 자그레브 최초의 분수는 헤르만 볼에 의해 1893년에 만들어졌다.



**땅 위의 태양**  
이반 코자리치가 만든 황금색의 구체 조각상, 땅 위의 태양은 보고비체바 거리의 명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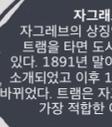


## 9 니콜라 테슬라 기념비 (SPOMENIK NIKOLI TESLI)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계적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동상이 이곳에 있다. 이반 메슈트로비치가 제작한 동상의 테슬라는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다. 마사리코바 거리에 늘어난 우아한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 사이를 산책하고 니콜라 테슬라 거리의 식당에도 들러보자.



**자그레브 트램**  
자그레브의 상징인 밝은 푸른색의 트램을 타면 도시 곳곳을 누빌 수 있다. 1891년 말이 끄는 트램이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1910년 전기식으로 바뀌었다. 트램은 자그레브를 여행하기 가장 적합한 이동수단이다.



## 7 미마라 박물관 (MUZEJ MIMARA)

1895년에 만들어진 회색빛 중후한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저택은 오늘날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안테와 윌트루드 토피치 미마라가 자그레브시에 기증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1987년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 ★ 세인트 블라이세 성당 (CRKVA SV. BLAŽA)

크로아티아의 대건축가 빅토르 코바치치가 설계한 이 성당은 비잔틴 양식, 전통 크로아티아 양식, 그리고 20세기 초의 현대 건축공법이 한 데 어우러진 독특한 건물로 크로아티아 최초로 콘크리트로 강화된 돔을 가지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조각가 보이타 브라니샤가 조각한 성탄도가 전시된다.



## 2 니콜라 테슬라 광장 (TRG NIKOLE ZRINSKOG)

레누치의 말굽의 일부인 즌리에바츠 공원의 녹음 사이를 산책하자. 조록 말발굽이라고도 불리는 레누치의 말굽은 19세기 도시계획의 일부로 신록의 공원과 광장, 그리고 여러 랜드마크를 말발굽 모양으로 이어 놓았다. 이 곳에서는 고고학 박물관,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대저택이었던 크로아티아 과학예술아카데미, 역사적 건물에 들어선 현대식 갤러리 등이 있다. 1884년부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상관측기둥은 매주 월요일에 수동으로 태엽을 감아 작동한다. 19세기에 지어진 음악 파빌리온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 8 크로아티아 공화국 광장 (TRG REPUBLIKE HRVATSKE)

밝은 노란색 건물의 크로아티아 국립극장은 1895년 개관하여 이 광장을 더욱 우아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크로아티아 출신 조각가 이반 메슈트로비치의 작품 생명의 우물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무지개 빛의 지붕과 29미터에 이르는 지휘봉이 있는 음악학교의 새 건물이 매우 인상적이다. 1669년에 설립된 자그레브 대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다. 1889년 헤르만 볼이 설계한 역사주의 양식의 대저택은 예술공예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로아티아학교 박물관은 1889년에 지어졌다.



## 6 민족박물관 (ETNOGRAFSKI MUZEJ)

20세기 초에 지어진 자그레브의 유명한 아르누보 양식의 이 건물에는 가치 있는 민족학 관련 수집품이 전시되어 있다.



## ★ 니콜라테슬라 기술박물관 (TEHNIČKI MUZEJ NIKOLA TESLA)

체험을 위해 재현해놓은 광산과 테슬라의 실험실을 살펴보고, 천문관에서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관찰해보자.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이다.



## 5 크로아티아 국립문서보관소 (HRVATSKI DRŽAVNI ARHIV)

1913년 국립대학교도서관으로 지어진 아르누보 양식의 이 아름다운 건물은 오늘날 크로아티아 국립문서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다. 메인 열람실의 지붕에는 지구를 품고 있는 네 마리의 부엉이 조각상이 있고, 정면 외벽에는 과학을 상징하는 장식들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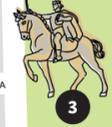
## 4 식물원 (BOTANIČKI VRT)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 1892년에 만들어진 이 식물원은 레누치의 말발굽의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영국식 수목원을 느긋하게 거닐다가 다양한 색으로 장식된 화단과 빅토리아 온실의 거대한 수련을 구경한 다음, 마호가니-붉은 낙엽송 다리를 건너보자.



## 3 토미슬라브 광장 (TRG KRALJA TOMISLAVA)

이 곳에서는 크로아티아 최초의 왕, 토미슬라브 왕의 기마상이 당당한 자태를 뽐낸다. 1896년 부다페스트 밀레니엄 전시회에 크로아티아 전시관으로 사용되었던 파빌리온이 있다. 1892년에 지어진 자그레브 중앙기차역을 지나면 1925년, 파리과 이스탄불을 이었던 최고급 오리엔탈 특급열차의 승객을 위해 지어진 에스플라나데 호텔이 있다.



## ★ 현대예술박물관 (MUZEJ SUVREMENE UMJETNOSTI) → 대중교통으로 25분

트램이나 버스, 택시를 타면 구불구불한 형태의 거대한 건물이 나타난다. 이 곳에는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현대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